14세기 문수보살상서 복장불상 발견

日다이치지 본존불서
복장물 10여 점도 확인
CT스캔 조사서 드러나
창건주 원불 가능성도

박영빈 객원기자

14세기에 조성된 목조 문수보살상의 내부에서 다양한 복장물들이 발견됐다. 지난 6월 3일 일본 '나라신문' '아사히신문' '산케이 신문' 등 주요 언론들은 잠들어 있던 성보들의 재발견을 특별 보도했다.

일본 나라(奈良)시에 소재한 나라국립박물관 측은 지난 1일 조사발표를 통해 "X선 CT스캔조사를 실시한 결과, 14세기에 조성된 목조 문수보살상 내부에서 10수 점의 복장물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를 받은 문수보살상은 14세기에 조성됐으며, 교토부 키츠카와(木津川)시에 소재한 고찰 다이치지(大智寺)의 본존불이다. 다이치지 측은 "절에 전해오는 전승으론 이 불상은 나라시대의 고승 쿄키(行基) 대사가 통행에 곤란한 사람들을 위해 키츠카와 강에 놓았던 다리의 기둥으로 조성했다고 전한다"며 불상이 지닌 특별한 의미를 전했다.

다이치지는 지난 가을부터 본당 보수공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계기로 문수보살상을 나라박물관 측에 위탁, 학술조사가 실시됐다.


x선 검사결과 숨겨진 문수보살상이 발견된 다이치지 목조문수보살상. 사진출처=나라신문

본존불인 목조 문수보살상은 사자를 타고 오른손엔 검을, 왼손엔 경전 두루마리가 올려진 연꽃을 들고서 당풍(唐風)의 의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다. 좌대를 제외한 문수보살상의 66.2cm 가량, 이 중 불상의 목 부분에서 역시 사자를 탄 모습의 또 다른 문수보살상이 복장된 사실이 밝혀졌다.

복장 불상은 사자좌를 제외하고 불상 본체의 크기만 2.7cm 가량의 극소형이며, 불감 안에 안치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불상이 모셔진 불감은 천으로 만든 주머니에 감싸져 있어 박물관 측은 "본래 승려가 몸에 지니고 다니는 원불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또 이 문수보살상은 사찰의 창건시기부터 본존으로 모셔왔다는 점에서 "복장된 불감과 문수보살상은 절의 창건주인 지신화상(慈眞和尙, 1231~1316)의 원불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지신화상은 14세기 초에 활동한 율사로 문수신앙에 열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이치지를 창건하고 2년 후 입적했다.

문수보살상의 내부에는 두루마리와 여러 겹으로 접어서 포갠 종이뭉치들이 함께 납입돼 있는 사실도 밝혀졌다. CT스캐너의 반응을 토대로 나라박물관은 "안타깝게도 먹으로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문헌들은 방사선에 반응 하지 않아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일부 문헌에서 금니 혹은 주사로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문헌들이 발견되었고 일부 글자를 판독할 수 있었다. 판독된 내용 가운데 〈금강경〉의 주석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경전도 함께 복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판독된 두루마리의 축에 육각형의 수정장식 등으로 장엄되어 있어 당시 매우 귀중하게 복장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야마구치 류스케 주임연구원은 "해당 불상에 대해 과거에 해체했던 흔적이나 기록이 있지 않아 조성 당시의 복장물일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귀중한 성과다. 복장물을 조사하는 것으로 불상의 명확한 조성 시기나 알려지지 않은 사찰의 역사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현재 조사를 마친 문수보살상은 한시적으로 연구결과보고와 함께 나라박물관에서 특별 공개된다. 현재 박물관 측은 불상의 복장물에 대한 추가조사를 위해 다이치지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했다.

日불교, 젊은 스님들의 새로운 도전

신도 감소 · 고령화 극복위해
불교에 다양한 분야 접목시도

젊은 불교도의 감소와 기존 신도의 고령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불교. 불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젊은 스님들의 다양한 도전들이 화제다. 지난 6월 12일 종교전문 매체인 '릴리전 뉴스' 는 일본불교의 새로운 도전들을 보도했다.

'릴리전 뉴스' 는 일본에서의 불교의 약세화에 대해 "일본에서의 불교는 우울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일본불교는 특히 죽음과 밀접해 '장례불교' 라고 불리기도 한다. 일본의 급속한 세속화와 인구 감소로 불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일본의 교외지역에 위치한 사찰은 약 7만 5천 개소, 이 중 3분의 1만이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사찰의 경우 운영을 위해 스님들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일반 직종에 취직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일본불교에선 젊은 스님들을 중심으로 불교의 부흥을 위한 다양한 도전과 혁신적인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스님들이 운영하는 바나 카페가 있다.


스님이 운영하는 '보우즈' 바에서 손님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출처=릴리전뉴스

최근 널리 주목받고 있는 시도 중 하나는 대중음악과 불교의 접합이다. 최근 〈반야심경〉을 노래한 작품으로 유튜브 조회수 280만회를 넘긴 야쿠시지 스님은 "불교의 가르침은 삶에 대한 노래"라고 말했다. 스님은 "사찰을 대대로 물려받는 전통이 너무나 싫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음악에 심취해 이내 밴드를 결성한 것이 음악활동의 계기"라고 전했다.

스님은 팝이나 포크송을 모티프로 불교의 가르침을 노래하다, 최근 염불을 현대적으로 노래하는 시리즈를 발표하고 있으며, 단독 콘서트와 유명 뮤지션들과의 콜라보레이션 등으로 일본 불교계와 음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통적인 예능으로 포교에 임하는 스님도 있다. 천태종의 츠유노 마루코 스님은 일본 전통 만담인 '라쿠고' 를 이용한 포교에 나서고 있다. 마루코 스님은 다양한 성향의 불자들을 거리의 상인들에게 비유하며 각각의 가게가 어떻게 중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지 이야기한다.

마루코 스님은 "(옴진리교 사건 등으로) 많은 일본인들이 종교를 의심하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종교는 식사를 하는 것처럼 생활의 일부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며 만담으로 포교로 활용하게 된 계기를 말했다.

한편 상담을 통해 불교를 전하는 스님들도 등장하고 있다. 출가자의 기본 정신이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상담가 스님들은 현재 일본내에서 인기가 높다. 자살예방 상담으로 유명한 네모토 이테츠 스님은 "젊었을 때 교통사고로 사선을 넘나들었던 경험이 있다. 그때 느낀 삶의 공허함과 의문이 지금의 출가로 이끌었다"며 혼자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해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민재 객원기자

BBC, 달라이라마 단독인터뷰 화제

코로나19에 온라인 진행
화상회의 프로그램 활용


BBC가 공개한 달라이라마 온라인 인터뷰 캡쳐. 사진출처=BBC

지난 6월 13일 영국 공영방송 BBC가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와의 단독 인터뷰를 진행해 화제다.

인도 북부의 다람살라에서 인사를 전한 달라이라마는 여러 아픔이 만연하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해 "어떠한 비극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비는 보다 더 깊은 인간의 가치를 드러낸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인간의 깊은 가치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형제자매가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 자비심은 자연히 발현된다"며 지구의 모든 이들이 서로를 생각하고 보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수 85세를 앞둔 달라이라마는 "내가 나이가 많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젊으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 나와 같은 노인들은 그러한 젊은이들을 가르치면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며 세대와 사회를 넘어선 공동체의 '일체감' 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일체감을 통해 사회문제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환경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달라이라마는 내다봤다.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세계가 함께 바람과 태양 등의 재생가능한 친환경 에너지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지구 온난화를 촉진시키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야 한다"고 전했다

달라이라마는 기자가 마지막으로 질문한 환생과 후계문제에 대해 "나의 후계에 대한 문제는 나를 따르는 티베트인들과 제자들에게 달린 것이다. 사실 나 스스로는 나의 환생에 대해 큰 관심이 없다"며 웃어 보였다. 또한 "나는 다만 '달라이라마' 라는 이름을 통해 인류에 공헌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호주, 티베트 노승에 훈장 수여 결정

84세 게쎄 따시체링 스님
포교 · 문화교육 공로 인정


오스트레일리아 훈장수훈이 결정된 따시체링 스님. 사진출처=글로벌 부디스트도어

호주에서 오랫동안 포교활동을 이어온 티베트 출신의 노승에게 '오스트레일리아 훈장(Order of Australia)' 훈장 수훈이 결정되어 화제다. 지난 6월 12일 해외불교전문 매체인 '글로벌 부디스트도어' 는 이 기쁜 소식을 특별 보도했다.

호주연방정부는 6월 8일 영국여왕의 생일에 맞춰 2020년도 오스트레일리아 훈장(OAM) 수훈자 명단을 공개했다. 총 5급으로 나뉘어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훈장의 이번년도 수훈자는 총 933명, 그중 제 5등급인 메달(Medal) 수훈자 중 티베트 출신의 노승 게쎄 따시체링(84)스님의 이름이 올랐다. 호주에서 오랫동안 불교를 전파하고, 불교문화와 철학을 가르친 공로에서다.

티베트인이 오스트레일리아 훈장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2007년 메달을 수훈한 남갤체링은 호주 티베트인 공동체 대표로, 호주에 정착한 티베트 난민들을 보조하고 티베트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전파한 공로로 수훈했다. 따시체링 스님은 두 번째 수훈자지만 불교포교와 문화전파를 공로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1959년 중국의 침공으로 인도로 망명한 따시체링 스님은 난민의 신분임에도 수행과 교학에 힘써 1984년 불교학 박사에 해당하는 게쎄 하람빠(Geshe Lharampa)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90년, 호주에 거주하는 티베트인들의 요청에 따라 호주로 이주해 포교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남인도에 소재한 밀교전문 강원인 규메사원의 방장소임을 위해 잠시 호주를 떠난 것 이외에 스님은 호주 브리즈번에 상주하고 있으며, '따시 캉마르 쌈둡링(TKSL)' 이라는 불교사원을 건립해 포교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부처님오신날 도량장엄등 설치 • 유지관리


연등 자동승강장치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법당용 연등

공단연등

아크릴한지등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전선, 전구등 공사자재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